

쟁점법 처리·특검 연장·의원 징계…여름 정국 ‘급랭’

민주, 권성동 형사고발·징계안 제출…“3대 특검 수사 범위 확대”
국힘, 정치인 사면 철회 촉구·주식 거래 전수조사 등 공세 전선

여야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두고 격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한 상태다. 과거 ‘진윤(진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혔던 권 의원을 형사고발 한 데 이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1일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나아가 언론에 구치소 내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대상을 확대해 특검법을 제발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건 관련자는 물론 권 의원 등까지 포함해 내란 수사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검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자칫 중도층 등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 개정은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너무 오래 하면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 때처럼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지도부 역시 최대한 빨리 내란 종식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정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고리로 대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로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청년층의 분노를 불러왔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특히 3대 특검을 발의했던 민주당을 향해 동일한 형식의 ‘이춘석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해당한다는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에 대한 주식 거래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며 여권 전반으로 공세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정부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개미 투자자 민심을 더욱 돌 아서게 할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지율이 높다고 정부·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국·윤미향을 사면하고, 이춘석 게이트를 꼬리 자르기로 벗어나려 한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권성동·추경호 내란 동조자 강력 조치를”

정청래 대표 SNS…“국힘, 남 간섭 말고 집안 문제 해결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전한길 징계 착수…안철수·조경태 “제명·출당하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며 “(국민의힘은)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부각하며 국민의힘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또 “통합진보당(통진당) 사례에 따르

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시한되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 대표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한다. 건강하게 대화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광주 숭고한 희생에 실천으로 보답할 때”

정청래 지도부 무안서 첫 현장 최고위…호남에 남다른 애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호남에서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된 8·2전당대회 다음날 나주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호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라며 입을 뗀 뒤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심장,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아냈다.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확실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서삼석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호남발 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삼석 의원을 임명한 것은 호남에 대한 보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꾸려진 호남 발전 특위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호남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이 호남 발전 특위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호남 첫 현장 최고위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로 전남 광주 합

동 회의로 광주시장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왔는데,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냐”며 “안 온 국회의원들은 왜 안 오지 않았냐”며 추후 사무총장은 불참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중 양부남 광주시장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신정훈, 김문수, 문금주 의원만이 참석했다.

앞서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 대표는 민주 의 문 앞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80년 5월 광주와 같은 참극은 다시 벌어질 것”이라면서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김민석 기자 mskim@

국힘 전대 ‘전한길 블랙홀’

대구 연설회서 찬탄과 후보에 “배신자”…후보들도尹 놓고 공방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2 전당대회의 선거 운동이 비전과 쇄신 경쟁은 온데간데없이 ‘윤석열·전한길 블랙홀’에 갇혀 움쭉달짝 못 하는 모습이다.

당장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스포츠라이트를 받은 이는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아니라 전씨였다.

전한길뉴스 기자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들어간 전씨는 개혁 성향인 찬탄(탄핵 찬성)과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

도했고 이는 물병 투척과 지지자 간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후보자들도 첫 연설에서 미래 청사진을 내놓기보다 전씨를 비롯한 ‘윤여계인’ 세력을 포용할지 여부를 두고 퇴행적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탄(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여계인도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그들이 극단 세력과 손 잡으며 대중 정당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면서 윤여계인과의 절연을 촉구하면서 대립했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사기
전 국민의 경제파탄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